

바스 부인(The Wife of Bath)을 통해서 몰리 블룸(Molly Bloom) 다시 읽기

이 영 심

차 례

- I. 서론
- II. 그리셀다와 페넬로페: 가부장제하의 이상적 여성상
- III. 가부장제 담론의 전복: 바스 부인과 몰리 블룸
- IV. 두 여성 인물의 한계: 당대 사회의 여성의 취약성 드러내기
- V. 결론

I. 서론

20세기 아일랜드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와 14세기 영국 작가인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의 『캔터베리 이야기』(*Canterbury Tales*)는 각기 다른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이 소설 장르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강조했던 대화성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즉,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입장을 대변하는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이들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초서는, “성지순례”라는 가상의 목적을 설정하여, 당대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는다. 이들의 각기 다른 복색은 중세 영국 사회에서의 각자의 사회적 위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각기 다른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이 인물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가치관이 반영된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풀어 놓는데, 이를

통해 『캔터베리 이야기』는 당대의 로맨스 문학 장르나 설교체 형식 설화 양식과 같은 당대의 제 문학적 형식들을 포섭한다.

한편으로 『캔터베리 이야기』가 보여주는 다양성은 조이스의 『율리시스』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율리시스』는 초서 이후의 500여년에 걸쳐서 생겨난 새로운 사회적 변화의 내용들을 포섭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담론들과 가치관, 문학적 기법이나 문체상의 제 변화들을 20세기 아일랜드(Ireland)의 더블린(Dublin)을 그 중심으로 설정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초서가 14세기 중세 영국 사회의 다양한 인물군상들과 그들의 가치관을 다양한 스타일로 종합해냈다면, 『율리시스』는 20세기 초반의 아일랜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담론을 각기 다른 서술기법과 서사 방식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캔터베리 이야기』의 “다성성”의 층위를 더욱 확대 팽창시킨다. 이 과정에서 『율리시스』는 당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아일랜드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당대 유럽에 팽배하고 있었던 제국주의 담론과 반유대주의 담론과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담론과 사회주의적 담론사이의 “대화성”을 극대화시킨다.

『캔터베리 이야기』와 『율리시스』가 보여주는 대화성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에서, 본 논문에서는 “가부장적 담론”과 “반가부장적 담론” 사이의 대화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시키려고 한다. 두 텍스트가 공통적으로 전형적인 가부장적 담론과 그와는 정반대의 반가부장적 담론을 동시에 끌어들이므로써 두 가지 상반된 담론들을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캔터베리 이야기』는, “14세기 후반 영국과 유럽에서 특정한 문학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던 이야기”(Dinshaw 132)속의 “수동적이고 인내하며 종속적인 여성성의 상징이자 ‘이상적인’ 아내를 대표하는”(Johnson 196) 그리셀다(Griselde)가 등장한다. 또한 이와는 정반대로 “힘 있는 여성적 목소리”(Carruthers 44)를 상징하는 여성 인물인 바쓰 부인을 등장시켜 그리셀다와는 상반된 “아내상”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텍스트 내에서 가부장적 가치관과 반가부장적 가치관 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대화성”이 강하게 부각된다. 초서는 “가부장적인 권력 구조가 사회적으로 성(gender)개념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고착시키고

자하는 시도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Dinshaw 12)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능동성과 수동성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남성과 여성의 대립으로 연결시키는 것”(Mann XV)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선진적인 의식은 “완전한 복종과 절대적인 침묵”(Hansen 189)을 보여주는 그리셀다와는 정반대로 “철저하게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아내 상”인 바쓰 부인이라는 인물을 창조해내어 이 두 여성 인물들 사이의 치열한 대화적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으로 『율리시스』는 마지막 에피소드의 부제를 “현모양처”의 대명사인 페넬로페(Penelope)로 설정함으로써, 서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가부장적 담론과 페넬로페와는 정반대적인 면모를 지닌 몰리 블룸(Molly Bloom)사이의 첨예한 대화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마지막 화자의 지위를 부여 받은 몰리 블룸의 강력한 내적 독백의 목소리는 어떠한 외부적 담론에서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율리시스』의 최종적인 틀을 확정”(Herr 130)함으로써, 서구 사회가 오랫동안 유포시켜온 “페넬로페와 같은 순종적인 여성상”이 강요하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담론이 얼마나 허위적인 것인가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바쓰 부인은 몰리 블룸의 “원형적 인물”(Lammers 497)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두 여성 인물들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두 여성 인물은 당대의 가부장적 담론의 권위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하며, 남성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러므로 이 두 여성 인물들을 통해서 초서 시대와 조이스 시대의 가부장적 담론과 페미니즘 담론간의 대화적 관계를 비교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율리시스』와 『캔터베리 이야기』, 이 두 텍스트에 들어와 있는 가부장적 남성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거나 대변하는 담론을 먼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담론으로서 바쓰 부인과 몰리 블룸의 담론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두 여성 인물들의 자신들의 전복적 담론에도 불구하고, 당대 사회가 여성들에게 지우고 있는 한계들에서 이들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그리셀다와 페넬로페: 가부장제하의 이상적 여성상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당대의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담론을 강력하게 대변하는 부분은 ‘대학생의 이야기’ (“Clerk's tale”)이다. 이탈리아의 영주인 월터(Walter)는 가난한 농부인 자니쿨라(Janicula)의 아름답고 순결한 딸 그리셀다(Griselde)를 신부로 맞이하면서,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그리셀다는 이러한 요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남성의 주도권을 인정해주는 현부의 전형으로 등장한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당신의 부친과 나는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잘 이해할 것이요. . . **당신은 이 결혼에 동의하오? . . . 당신이 내 모든 욕망을 다 들어 줄 것인지를 묻는 것이요. . .** 내가 당신에게 기쁨을 주든지 고통을 주는지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지를 묻는 것이요. 즉, **내가 무엇을 하든지 조금도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것이요.** 내가 ‘그렇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아니요’라고 말한다든지 또는 얼굴을 찌푸리거나 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것이요. 이것을 맹세하오. 그러면 나는 우리의 결혼을 서약하겠소.”

이 말을 들은 그리셀다는 놀람과 두려움에 떨려서 말했다.

“저는 당신이 내리시는 이 영예를 누릴 자격이 없지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제가 원하시는 것이옵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Grisilde," he seyde, "ye shal wel understonde
It liketh to youre fader and to me
That I yow wedde

. . .

"That sith it shal be doon in hastif wyse,
Wol ye assente, or elles yow avyse?"

I seye this, be ye redy with good herte
To al my lust, and that I frely may,
 As me best thynketh, do yow laughe or smerte,
 And nevere ye to grucche it nyght ne day,
 And eek whan I sey ye, ne sey nat nay,
 Neither by word, ne frownyng contenance?
 Swere this, and heere I swere yow alliance."
 Wondrynge upon this word, quakyng for drede,
 She seyde, "**Lord, undigne and unworthy**
Am I to thilke honour, that ye me beede,
But as ye wole yourself, right so wol I.
And heere I swere, that nevere willyngly
In werk ne thoght I nyl yow disobeye,
For to be deed, though me were looth to deye." (*The Tales of The Clerk and The Wife of Bath* 83-84)¹⁾

영주로서의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월터 앞에서, 계급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와는 상대가 되는 되지 않는 “가장 가난한 신하”(Johnson 206)에 불과한 그리셀다는 그의 명령에 거부할 어떠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린다 조지아나(Linda Georgiana)가 지적하듯이, “계급제도의 밑바닥에 위치하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리셀다가 영주인 월터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미리 예정어진 것”(Georgiana 798)이다. 즉, 월터가 “천한 태생의 아내를 선택하는 것”은 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독재를 할 수 있는 더 많은 여지를 주는 것”(Mann 116)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그리셀다는 “자신 스스로”가 목숨을 바쳐 월터에게 복종할 것을 서약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녀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을 맹세하는 그리셀다의 순종적 모습은 이상적인 여인상의 전형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다. 그녀는 귀족들이 자신의 천한 신분을 문제 삼아서 딸을 죽이라고 요구했다는 월터의 거짓된 요구에도, 자신과 딸이 남편인 그의 것이라는 소유물이라는 것

1) 굵은 글씨 강조는 필자의 것임. (이하 동일)

을 인정하면서 그의 명령에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 심지어 아내인 자신을 내치겠다는 그의 요구에도 기꺼이 순종하며, 새로운 신부를 위해서 신방을 차려달라는 요구에도 한마디 불평 없이 따른다. 그리고 그리셀다는 남편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인 복종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월터는 아름다운 새신부와 그 신부의 동생이 바로 자신들의 딸과 아들이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앞으로 그녀에게 영원히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그녀에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분적인 우위와 경제적인 차이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강요하는 월터의 모습은, 당대의 남녀관계의 불평등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당신이 저를 안주인으로 만들어주신 이 집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당신의 아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귀하신 당신의 비천한 몸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살아 있는 한 **당신의 충실한 하녀**로써 남아 있겠습니다.”

And in this hous ther ye me lady maade -
 The heighe God take I for my witnesse,
 And also wysly he my soule glaade -
 I nevere heeld me lady ne maistresse,
 But **humble servant** to youre worthynesse,
 And evere shal whil that my lyf may dure
 Aboven every worldly creature. (*The Tales of The Clerk and The Wife of Bath* 102)

월터와 그리셀다는 표면적으로만 부부관계일 뿐, 실질적으로는 신분과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는 간극으로 인해 그리셀다는 남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하녀의 위치로 전락한다. 비록 그녀의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이 후에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한 삶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점차로 더욱 더 잔인한 심리적 고문을 가하는”(Sturges 42) 월터의 요구를 감내하면서 그녀가 받은 정신적인 상처는, 사실 그 어떤 것으로 보상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셀다

가 영주의 아내로서 누리게 될 “권력과 부유함은 남편에 대한 종속을 수반하는 것이며”(Mann 116) 이미 동등한 남편과 아내 관계는 상실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초서 시대에 그리셀다의 이야기와 같은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이야기 이 여성들에게 “지조를 지키라”는 덕목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그리셀다의 이야기를 하는 주체가 바로 ‘지식’을 표상하는 옥스퍼드 대학생이라는 사실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절대적인 권위와 통제권을 강조하는 작업이 “지식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레슬리 존슨(Lesley, Johnson)은, 14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셀다에 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번역되고 각색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리셀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영국에서 초서의 ‘대학생의 이야기’ 버전뿐만 아니라, 14세기의 다른 버전들과 더불어서 이 그리셀다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쓰고 번역하고 개작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자극했다. . . 그녀의 이야기가 **시대와 문화적 특수성을 초월하여 모범적인 여성상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셀다는 변하지 않는 **‘훌륭한 여성’의 상징**으로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Johnson 197)

즉, 원래는 "이탈리아의 보카치오(Boccaccio)가 구전 민담을, 『데카메론』(Decameron)의 마지막 이야기로 각색하고, 이것을 다시 페트라르카(Petrarch)가 라틴어로 번역했으며, 이 라틴어 번역본을 토대로 초서가 다시 번역한"(Dinshaw 132) 이 그리셀다의 이야기가 영국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서 다양한 서술방식과 형태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바로 당대 지배계층인 남성들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부합했기 때문인 것이다. 여성의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또 여성 스스로가 극단적인 인내심을 통해 남편의 그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복종에 대한 보상을 받는 이 이야기를, 500여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유포시키고 재생산해냈다는 것은, 영국 사회가 가부장적 가치관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속시켜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존슨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 영혼과 몸, 신과 인간”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나누고 전자에 의한 후자의 복종을 강요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자하는(Johnson 2003) 지배계층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온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율리시스』 역시, 가부장적 보수 담론을 끌고 들어오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율리시스』가 원본으로 삼고 있는 『오디세이』의 두 중심인물인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19 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이타카(Ithaca)섬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 오디세우스를 끝까지 기다린 “페넬로페”는,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보여준 그리셀다와 마찬가지로 서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강요해온 정숙한 아내의 전형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페넬로페는 현명하게도 “낮에는 베를 짜고 밤에는 그것을 풀어서 결코 다 짜질 수 없는 천”을 구실로 온갖 남성들의 유혹을 꺾어 버려 낸 “훌륭한 아내”인 것이다. 그러나 19 년이라는 긴 세월을 “생과부”로 지내면서 그녀가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과 성적인 결핍감은, 그리셀다가 자식들과 생이별하고 남편의 새 여자를 위해 신방을 꾸미면서 느꼈을 고통에 비해 작은 고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뒤늦게 이루어지는 오디세우스의 “귀환”은, 그 기간 동안에 페넬로페가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남편의 직무유기를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감내하는 페넬로페같은 여성을 모범적인 여성상으로 제시해 온 것이 바로 서구의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전략인 것이다.

『율리시스』에서 보수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다른 방식중의 하나는 '디시교장'이나 '시티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부정적인 여성상, 즉,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한 여성들이나 남편을 파멸로 이끈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여성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디씨 교장은 아래를 바라보며 잠시 손가락으로 자신의 콧등을 비틀어 쥐더니 다시 그를 쳐다 보면서 그것을 놓았다.

... 한 여인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지. 자신이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한 한 여인, 즉 메렐라우스의 도망친 아내 헬렌 때문에 그리이스들은 10년 동안이나 트로이 전쟁을 겪어야만 했다. 한 부정한 아내가 처음으로 우리의 해

안인 이곳에 이방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네. 맥머로의 아내와 그녀의 정부인 브레프니의 왕자인 오르크를 말하는 것이네. **한 여인이 또한 파넬을 밑바닥으로 끌어 내렸어.** (U2. 390-04)

위에서 보는 것처럼 디씨 교장은 성경이나 그리이스 신화 속의 이브나 헬렌, 그리고 당대의 파넬의 정부였던 오쉬아와 같은 부정적인 여성들을 보여주면서, 서구의 “남성 중심적 문화가 여성을 부정한 매춘부로 규정해왔던”(Froula 138)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바쓰 부인의 마지막 남편인 젊은 젠킨(Jenkin)이 그녀에게 잃어주는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하와나, 삼손의 머리를 자른 그의 애인,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게 만든 데이아네이라,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오줌을 눈 크산티페, 아가멤논을 정부와 찢고 독살한 클리타임네스트라 등등 온갖 나쁜 여자들의 전형을 열거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율리시스』에서는 “인류를 타락시킨 이브”나 “메넬라우스의 부정적인 아내 헬렌”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부정적인 여성 이미지를 여성에게 덧씌우려는 보수적인 남성들의 시각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III. 가부장제 담론의 전복: 바쓰 부인과 물리 블룸

『캔터베리 이야기』의 바쓰 부인과 『율리시스』의 물리 블룸이 각각 그리셀다와 페넬로페라는 여성 인물들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은 절대로 “입에 못질하지 말라,” 즉, “침묵하지 말라”는 초서의 충고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두 여성 인물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당당하게 발설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불평등하고 비인간적인 남성(남편)중심적 시각을 드러내고 그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옥스퍼드 대학생의 그리셀다에 대한 이야기의 끝에 초서는 다음과 같은 결구를 삽입함으로써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신중함을 갖추고 계신 귀부인들이여 **겸손함이라는 미명으로 당신의 입을 못질하지 말라**. 또한 학자들에게 참을성 있고 친절한 그리셀다와 같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게 하지 말라. . . 에코를 뒤따르라. **그녀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항상 말대꾸를 했다. 너무나 순진한 바보가 되지 말고 남편들을 날카롭게 쥐고 흔들어야한다.** . . . 세상의 훌륭한 아내들이여, 자기 자신을 지켜라. . . 왜 그대들은 남편들을 겁내고 존경해야만 하는가? 남편들이 갑옷으로 무장을 했다하더라도 **그대들의 유창한 말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가슴과 튼튼한 턱반이를 꿰뚫을 것이다.**”

O noble wyves, ful of heigh prudence,
 Lat noon humylitee youre tonge naille,
 Ne lat no clerk have cause or diligence
 To write of yow a storie of swich mervaille
 As of Grisildis, pacient and kynde,
 . . .
 Folweth Ekko, that holdeth no silence,
 But evere answereth at the countretaille;
 Beth nat bidaffed for youre innocence,
 But sharply taak on yow the governaille.
 . . .
 Ye archiwyves, stondesth at defense,
 . . .
 Ne dreed hem nat, doth hem no reverence,
 For though thyn housbonde armed be in maille,
 The arwes of thy crabbed eloquence
 Shal perce his brest and eek his aventaille. (*The Tales of The Clerk and The Wife of Bath* 115-16)

위에서 보는 것처럼, 초서는 부당한 남편들의 행태와 요구를 아내들이 그대로 다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낸다. 그러한 무조건적인 침묵과 복종은 결코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라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비록 여성들

이 남성들이 가진 권력이나 힘, 그리고 지식은 없을 지라도 언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편들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둘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초서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쓰 부인인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는 그리셀다와는 정반대로 “남성 권력을 전복시키는”(Sturges 42) 데까지 나아간다. 바쓰 부인의 답론은, 남녀 관계의 있어서의 주도권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여성이 그 주도권을 쥐어야함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바탕으로 나이트 남편들을 쥐락펴락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다섯 번 이라 결혼한 사실을 들어 자신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주장한다.

“나는 **경험**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올바른 자격을 갖추었다고 여겨요. 열 두 살 때부터 교회에서 다섯 번이나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 . 현명한 솔로몬 왕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가졌어요. . .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명확하게 결혼을 금지하신 적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아니면 꼭 동정이나 처녀성을 지켜야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 . . 하느님이 동정이나 처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 . 말해보세요. 왜 우리의 생식기관이 만들어졌는지. . .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무 목적도 없이 만들어졌다고는 생각지 않을 거예요. . . 그것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생리적 기능이지요. 또 다른 것은 생식의 기쁨이지만, 이것이 하느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Experience, though noon auctoritee
 Were in this world, is right ynogh for me
 To speke of wo that is in mariage;
 For, lordynges, sith I twelve yeer was of age,
 Thonked be God that is eterne on lyve,
 Housbondes at chirche dore I have had fyve,
 . . . Lo, heere the wise kyng, daun salomon:
 I trowe he hadde wyves mo than oon.
 . . . Wher can ye seye, in any manere age,

That hye God defended mariage
 By expres word? I pray yow, telleth me.
 Or where comanded he virginitee?
 . . . For hadde God comanded maydenhede,
 Thanne hadde he dampned weddyng with the dede.
 . . . Telle me also, to what conclusion
 Were membres maad of generacion,
 And of so parfit wys a wight ywroght?
 Trusteth right wel, they were nat maad for noght.
 . . . I sey this, that they maked ben for bothe,
 This is to seye, for office, and for ese
 Of engendrure, ther we nat God displese. (*The Tales of The Clerk and The
 Wife of Bath* 27-31)

프롤로그 부분에서 바스 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떤 추상적 지식
 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실제 경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당대의 여
 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지식, 특히 문자 지식 측면에서의 절대적인 열세였음
 을 감안할 때, 그녀가 “지식”이 아닌 “경험”을 결혼에 대한 논거의 중요한 근거
 로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패러다임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결혼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주장을 펴는데 있어서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가 그 기준점이 된다면, 지식이 많은 학자나 정치적인 권
 력자가 아니라, 바로 다섯 번이나 결혼생활을 한 자기 자신이 가장 강력한 권
 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 그녀는 “경험의 의미를 조건지우
 고 제한하며 범주와 시키는 권위의 위계질서를 전복시키는 것이며. . . 궁극적
 으로는 답론 그 자체가 창출하는 경험과 권위의 위계질서를 전복시킨
 다.”(Straus 529)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종교를 빌어 자신
 을 솔로몬왕이나 성인들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는 지
 식과 학식이 없고, 정치적인 권력이나 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월터와의 관계
 에서 자신을 끝없이 낮추고 지우는 그리셀다와는 정반대의 대응 방식을 드러
 낸다. 즉, 지식과 경제력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가진 남성들보다 자신이 우위

에 있을 새로운 패러다임인 “경험”의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견해”(Weil 36)를 통해, 사회적으로 남성들이 전유하고 있는 “심각하고, 공적인 남성적 학습의 담론, 그리고 글쓰기의 책과 함께 진행되는 지식의 담론에 대항하며. . . 사적이고, 여성적이며, 가정 세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의 담론을. . . 구어를 통해서 강력하게 전달”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Straus 529-30)

바스 부인이 “경험”을 강조하면서 “결혼 담론에 대한 권위”를 얻은 다음에,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생식의 기능을 강조하는 점 역시 중요한 점을 함축한다. 그녀는 그리셀다에게 윌터가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남편에 대한 절대 복종등과 같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몸의 생식기의 기능에서 출발한다. 르네상스 정신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인본주의의 출발점이 바로 인간의 “몸”에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그녀의 이러한 전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몸은, 영주라든가 시골 처녀라든가 하는 외적 신분이나, 정치권력이나 경제적 부와 같은 외부적 조건을 제거하면 누구나가 다 똑같은 상태인 것이다. 또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식기의 기능은 “생식”과 “신진대사”를 위한 동일한 장치인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그녀는 여성의 순결이나 처녀성, 그리고 남편에 대한 정절을 강요해 온 남성들의 가부장적 담론을 과감하게 공격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먼저, 가장 현명한 왕으로 칭송받는 솔로몬 왕이나 추앙받은 성인들 모두 한 명이상의 아내를 취했던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섯 명의 남편을 가졌던 자신은 도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결혼이나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권위를 가질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개한다. 그녀는 “경험과 권위, 남성과 여성,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위계질서화 시켰던”(Straus 531) 당대의 지배담론을 해체시킨다.

한편으로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기사의 강간행위이다. 이는 남성이 자신의 육체적인 힘으로 여성을 그녀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행위이며, 원초적인 측면에서 남성 우월주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강간은 남성들이 여성에게서 원하는 본질적

인 대상인 바로 여성의 몸이며, 더 나아가 그 몸을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왕비가 그의 목숨을 담보로 내건 수수께끼가 바로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점은, 바쓰의 부인 이야기가 보여주는 가부장적 담론의 전복적 측면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부각시킨다. 앞서서 언급했던 월터와 그리셀다의 이야기에서는 그리셀다가 무엇을 원하는지의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오직, 월터가 원하는 것만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바쓰 부인의 이야기의 화두는 바로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몸”만을 추구했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단 한 번도 담론의 중심으로 제기되지 못했던,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킨다. 이를 통해서 “남성의 욕망”이라는 담론 대신에 지금까지는 억눌리고 무시되어왔던 “여성의 욕망”을 제시하면서 여성도 당당한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더 나아가 담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기사가 살기 위해서 찾아낸 답인 “남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월터와 그리셀다가 보여주었던 당대의 남녀의 권력관계의 지형을 전복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들이 사회적 지위나 권력,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내세우며 아내들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들 역시 남편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당대의 사회가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사회이기 때문에 현실 상황에서는 그리셀다와 월터 관계가 훨씬 더 지배적으로 드러나기는 하겠지만, 바쓰 부인의 강력한 목소리는 그러한 당대 남성중심적 사회구조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여성 역시 자신의 욕망의 주체로堂堂히 설 수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몰리 블룸 역시 당대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페넬로페”적인 정숙한 아내상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블룸이 텍스트의 전반부에서 반복적으로 보일런과의 그녀의 만남을 제기했던 것에 주목하면서, 이번에는 블룸의 “바람둥이”적인 면모를 부각시킨다. 그녀의 내적 독백을 통해 묘사되는 블룸은,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심지어 집의 하녀인 “메리와 놀아나는”(U 18. 55-57) 형편없는 남편의 모습이다. 몰리는 이전

에피소드들에서 남성 인물들에 의해서 강조되어온 “부정한 아내”의 이미지를 “부정한 남편의 이미지”로 전환시켜 내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 역시 남자인 블룸과 마찬가지로 다른 남자들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당당하게 드러낸다. 즉,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녀 역시 “다른 남자”가 자신을 “마비시킬 정도로 길고 뜨거운 세상에 다시는 없을 그런 키스”(U 18. 104-06)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의 몸과 몸의 욕망에 대해서 솔직한 면모를 보여준다.

내 생각에 그는 매우 남다른 것 같아 나는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단 말이야. . . 나는 종종 그에게 키스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 . . 나는 다른 쪽을 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내 몸 아래서 그가 반쯤 기절할 정도로 기쁘게 만들어 주겠어. . . 그가 만일 나의 엉덩이에 키스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바로 그의 얼굴에 대고 벌리겠어 (U 18.1325-521)

물리는 자신보다 거의 열 살이나 어린 20대의 스티븐을 보면서, 그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물리는 바쓰 부인의 “경험의 논리”를 그대로 빌려 오는 모습을 보인다. 즉, 자신이 스티븐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나, 유부녀라는 위치로 인해서 움츠러들거나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러한 위치 때문에 그를 “가르쳐 줄 수 있으며” 또한 그를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물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내며, 여성의 몸, 특히 성기가 남성들의 몸이나 그것보다 더욱 아름답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즉, 그녀는 “가득 찬 두 개의 가방이 달려 있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매달려 있는 남자의 그것과 비교해서 너무나 아름답다” (U 18. 541-43)고 말함으로써, 여성들이 자신들의 아름다운 몸을 토대로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그녀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고집하려 했던 “아내와 어머니의 하나의 원형”(Doody and Morris 237)으로서의 정숙한 페넬로페의 이미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물리는 외부적 권위를 배제한 채, 자신에게 허용된 강력한 내적 독백 장치들

이용하여, 남편인 블룸이 성적 욕망이나 은밀한 자신의 내적 욕망을 가지고 있듯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망에 대해 지금까지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성담론의 주체로 자신을 당당하게 세운다. 이를 통해 당대 사회가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해 온 “금지의 법”(Rabat 82)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또한 블룸과 스티븐의 배설행위에 대응하여 월경에 대해 거리낌 없이 언급하고 이를 통해서, “여성의 다산성과 생명력”(Tymoczko 111)을 자랑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성적 측면을 강하게”(Parrinder 162) 부각시키는 몰리의 “자신만을 위한”(Mahaffey 165) 내적 독백은, 남성적 “질서와 권위”(Lawrence 196) 대한 도전을 보여준다. 그녀는 블룸이 아닌 다른 ‘외간 남성’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혀 망설임이 없으며, 남성들의 성기에 대한 집착을 통렬하게 꼬집는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성기를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양”(U 18. 562) 과시하며, “침대위에 남은 피얼룩을 보기를 원하는”(U 18. 1125-28) 남성들의 처녀성에 대한 어리석은 집착을 비웃으면서, 더 나아가 남성들을 결코 될 수 없는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과시한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로를 죽이거나 파묻는 것을 우정이라고 부르는”(U 18. 1270-71) 남성들의 폭력성과 호전성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이를 통해, 몰리는 마이클 스타니어(Michael Stanier)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아주 효과적인 방식으로 “남근 중심의 세계의 안정성을 흔들고 손상시키면서 ‘풀어 헤치고’”(Stainier 320) 있는 것이다.

IV. 두 여성 인물의 한계: 당대 사회의 여성의 취약성 드러내기

제 2절에서는 『켄터베리 이야기』와 『율시시스』의 두 중심 여성인물들인 바쓰 부인과 몰리 블룸이 당당하게 당대의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담론에 대한 반담론을 펼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바쓰 부인이나 몰리 블룸이 당대의 일반적인 여성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그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여성에 의한 남성에 대한 지배를 역설한

다하더라도, 그녀들이 당대의 전반적인 사회 구조 속에 제약되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두 텍스트는 또한 놓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바쓰 부인이 남편보다 주도권을 쥐는 앞선 세 번의 결혼에서, 남편들이 모두 그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성들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는데, 이는 그녀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자신과 나이가 같은 남자를 선택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이 많은 남편들(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중의 하나인 성적 능력에 있어서의 결함이 있는)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어리거나 젊은 바쓰 부인(그녀는 젊고 싱싱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을 취한다. 이것은 분명, 그녀가 자신의 성적 욕망의 만족을 포기하고 얻는 대가인 셈이다. 비록 그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자신의 늙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그들이 그녀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열 두 살의 나이에 “부유하지만 성적 불능인 늙다리 남편과의 첫 번째 결혼”(Delany 74)을 한 이후에, 합법적으로 네 번이나 더 결혼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 세 명의 남편들이 모두 자연사한 것이라면, 그녀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송장들과 결혼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리고 자신의 젊은 몸을 바쳐서 획득한 부를 토대로 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결혼에서는 젊은 남편을 맞이하지만, 이는 결혼 생활의 주도권을 젊은 남편에게 내주는 것을 감수하는 선택이라는 아이러니를 내포한다. 카루테르스(Carruthers)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바쓰 부인이 자신의 프롤로그에서 예를 들고 있는 기사와 늙은 노파의 이야기는 바로 젠킨과 자신의 경험과 유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현실이 아닌 로맨스의 세계 즉, 경제적인 측면이 제거되는 상황에서(Carruthers 37) 젊은 기사가 나이 많은 그녀를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남편인 젊은 남편인 젠킨은 또한 당대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는 남편에게 절대 순종하는 여성상을 자신의 지식권력을 바탕으로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그리셀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강요했던 남편인 월터의 모습에 다름 아닌 것이다. 나이가 스무 살이나 어린 젠

킨이지만, 그가 책의 내용을 통해서 그녀를 남성에게 순종하는 여성으로 교화 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성은 특히 대학생이라는 그의 신분이 드러내듯, 일반적으로 여성들보다는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여성들에 비해서 용이하며, 남성들은 그러한 지식담론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권위”(Carruthers 33)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바쓰 부인이 켄킨과의 담론을 통한 대결에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며,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켄킨의 논리를 그래도 수용하거나 아니면 논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것 둘 중의 하나이다. 결국 그녀는 그가 보는 책을 찢음으로써, 즉, 여성의 순종을 강요하는 담론체계나 담론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후자를 선택한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녀는 켄킨에게 바로 폭력적 방식의 응징을 당하게 되며, 결국 한쪽 청력을 잃는다. 그러한 희생의 대가로 그녀는 비로소 젊은 남편인 그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한다. 하지만, 그녀가 한번 잃어버린 청력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그녀가 겪는 이러한 신체적 폭력의 흔적은 이것은 당대의 사회에서 결혼 제도 하에서 여성이 주도권을 쥐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그대로 반영한다. 켄킨과의 관계에서 권력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그녀는 신체적인 폭력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바쓰 부인은 또한 당대의 남성의 욕망의 투사를 강하게 드러내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남성들이 가장 바라는 여성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점을 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가장 뿌리깊은 측면은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당대의 여성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서 대접받기보다는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성적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은 오직 자신의 육체만을 불모로 해서 살아가는 하는 것이다. 아내로서의 여성의 위치의 약점을 드러내는 부분은 바로 켄킨이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용인된다는 측면이다. 이는 그녀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기사의 강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성적인 학대의 측면, 즉 육체적인 학대를 포함한다. 이점은 『율리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키르케」("Circe") 에피소드의 장소적 배경을 매음굴로 설정한 것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즉, 14세기에 영국에서는 가

난한 어린 여성의 몸을 돈 많은 늙은 남성들이 결혼이라는 미명으로 농락했던 것처럼, 20세기 자본주의 사회인 아일랜드에서는 매춘이라는 형식으로 가난한 여성들의 몸이 농락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쓰 부인은 결혼이라는 미명하에 늙은 남성들에게 자신의 젊은 몸을 바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변형된 매춘행위인 것이다.

몰리 역시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담론 권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먼저 외부의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몰리의 내적 독백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어떤 외부 인물과도 전혀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녀가 바쓰 부인과 마찬가지로 지식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변형”(Metamorphosis)이라는 단어 뜻을 모를 정도로 몰리의 지식의 폭은 매우 빈약하다. 이러한 그녀의 상황은 당시 여성들의 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남편인 블룸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즉, 이것은 언어와 담론 권력에서 몰리가 근본적으로 소외되어 있음을 드러내며,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외화시키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20세기 아일랜드 사회에서 그녀와 같은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다.

V. 결론

바쓰 부인은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그리셀다와는 정반대로, 목소리 높여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의 주도권을 역설하며, 그리셀다가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당대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 『율리시스』는 몰리의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지막 에피소드를 “페넬로페”라는 제목 하에 배치시킨다. 이 과정에서 장구한 세월 동안 자신과 아들을 방치한 오디세우스를 한마디 불평 없이 기다리면서 수많은 구혼자로부터 자신의 순결을 지켜낸 서구 사회의 현모양처의 전형인 페넬로페에 대한 반페넬로페적인 역할을 몰리에게 부여함으로써, “페넬로페적인 아내상”을 세우려 했던 당대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의 상투성을 풀

어내는”(Devlin 75) 작업을 시도한다. 물리의 독백은 “율리시스 작품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배신하는 아내라는 주제”(Spoo 451) 치열한 대화의 전투를 진행한다.

당대의 권위주의적이고 지배적인 가부장적 남성 담론에 맞서서, 두 여성 인물들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출하는 공통점을 드러낸다. 특히 주목할 측면은 이들은 모두 그간 남성들이 전유해온 문자중심의 지식담론 대신에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이들은 남성들만이 독점해온 성담론(Sexual discourse)의 주체로 당당히 자신을 세운다는 점이다. 초서는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바스 부인을 등장시켜 실제 결혼 생활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인간의 몸과 성에 관한 담론을 과감하게 펼쳐낸다. 또한 그녀는 처음의 나이 많은 세 명의 남편들을 자신의 “성적 능력을 통해서 조정하며”(Schwartz 156), 연하의 두 남편들과의 관계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자신이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진술한다. 또한 그녀의 이야기의 중심 주제를 당대의 지배적인 물음인 “남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와는 정반대로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설정함으로써, 논의의 중심을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전환시킨다.

물리 역시 바스 부인과 마찬가지로 침묵하는 대신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시도”(Hill 341)하며, 현모양처와는 거리가 먼 ‘반페넬로페’적인 성격을 확실하게 드러낸다. 그녀는 바스 부인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동등한 위치나 혹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과시한다. 또한 그녀는 바스 부인과 마찬가지로 “탐욕스러운 성적 욕망”(Schwartz 157)을 드러내는데, 다른 여자들을 끊임없이 힐끗 거리는 블룸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외간 남자를 보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주저 없이 진술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인 보일런과 자신의 집에서 밀회약속을 하는 과감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과정을 통해 그녀는 “성적인 측면에서의 이중의 잣대를 초월”(Ames 160)할 뿐만 아니라, 서구 문화가 교묘하게 공고화시켜왔던 “성적인 차이의 구조화”(Froula 110)에 대한 과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시의 아내들과는 달리 남편인 블룸이 준비해주는 아침 식

사를 침대 위에서 받으며 등장함으로써 남편과 아내의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여성인물들은 각각 자신들의 시대에 있어서의 여성에게 지워진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갖는 이러한 한계들은 바로 당시의 사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써 두 남성 작가의 날카로운 사회적인 통찰력을 반영하는 장치이다. 두 여성 인물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들이 문자를 바탕으로 한 지식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지배적인 담론 권력의 장안에서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에만 갇혀 있지 않고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유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리고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견문을 넓혔던 초서와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에만 머물지 않고 유럽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으며, 평생 눈병으로 고생할 정도로 방대한 독서를 시각을 넓혔던 조이스는 삶 역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각각 자신들의 삶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소외를 경험했던 두 작가가 “소외”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로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두 작가는 또한 한 계층의 시각과 입장만을 단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장들과 가치관을 다층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통해 그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는 공통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있으며, 이러한 “다성성”과 “대화성”은 이 두 텍스트들을 각각 당대의 삶의 스펙트럼을 폭넓게 포섭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인용 문헌

- Ames, Christopher. "The Modernist Canon Narrative: Woolf's Between the Acts and Joyce's 'Oxen of the Su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37. 4 (Winter 1991): 390-404.
- Carruthers, Mary. "The Wife of Bath and the painting of lions Afterward". *Feminist Readings in Middle English Literature*. Ed. Evans, Ruth & Johnson, Lesley. London: Routledge, 1994: 22-39
- Chaucer, Geoffrey. *The Tales of the Clerk and The Wife of Bath*. Ed. Wynne-Davies, Mar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2.
- Devlin, Kimberly J. "Pretending in 'Penelope' Masquerade, Mimicry, and Molly Bloom" *NOVEL: A Forum on Fiction*, 25. 1 (Autumn, 1991): 71-89.
- Dinshaw, Carolyn. *Chaucer's Sexual Poetics*. Wisconsin: Wisconsin UP, 1989.
- Froula, Christine. *Modernism's Body: Sex, Culture and Joyce*. New York: Columbia UP, 1996.
- Georgianna, Linda. "The Clerk's Tale and the Grammar of Assent". *Sepulum* 70. 4(October, 1995): 793-821
- Hansen, Elaine Tuttle. *Chaucer and The Fictions of Gender*. Berkely; California UP, 1992
- Herr, Cheryl. "'Penelope' as Period Piece". *NOVEL: A Forum on Fiction* 22. 2 (Winter, 1989): 130-142.
- Hill, Marylu. "Amor Matris": Mother and Self in the Telemachiad Episode of *Ulysses*."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39.3 (Autumn 1993): 329-343
- Johnson, Lesley. "Reincarnations of Gridelda: Contexts for *The Clerks Tale*?" *Feminist Readings in Middle English Literature*. Ed. Evans, Ruth & Johnson, Lesley. London: Routledge, 1994: 195-220
- Joyce, James. *Ulysses*. London: Random House, 1986
- Lammers, John H. "The Archetypal Molly Bloom, Joyce's Frail Wife of Bath," *James Joyce Quarterly* 25 (1988): 487-502.
- Lawrence, Karen. *The Odyssey of Style in Ulysses*. Princeton: Princeton UP, 1981.

- Mahaffey, Vicki. *Reauthorizing Joy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Mann, Jill. *Feminizing Chaucer*. Cambridge: D. S. Brewer, 2002
- Schwartz, Lewis M. "Eccles Street and Canterbury: An Approach to Molly Bloom"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15. 3 (Oct., 1969):155-165
- Spoof, Robert. "Teleology, Monocausality, and Marriage in Ulysses" *ELH*, 56.2 (Summer, 1989): 439-462
- Stainer, Michael. "The Void Awaits Surely All them That Weat the Wind: 'Penelope' and 'Sirens' in *Ulysses*".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41. 3 (Autumn, 1995): 319-331
- Straus, Barrie Ruth. "The Subversive Discourse of the Wife of Bath: Phallogocentric Discourse and the Imprisonment of Criticism" *ELH*, 55.3 (Autumn, 1988): 527-554
- Sturges, Robert S. "The Canterbury Tales" Women Narrators: Three Traditions of Female Authority " *Modern Language Studies*, 13. 2 (Spring, 1983): 41-51
- Tymoczko, Maria. *The Irish Ulyss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Abstract

Rereading Molly Bloom through the Wife of Bath

Young-Shim Lee

In *Ulysses*, the relationship of Bloom and Molly, which is a different version of that of Odysseus and Penelope, is the negation of the traditionally established woman's image of being submissive to her husband in the Western Society. Through Molly, who is a kind of Anti-Penelope, Joyce criticizes the constructed patriarchal system of Western History in which since Homer's era, without mentioning husband's adultery, the problem regarding wife's adultery has been emphasized whenever the adultery issue is raised in the Western History.

This dialogic relationship between the patriarchal discourse and anti-patriarchal one derives from Chaucer's *Canterbury Tales* in which Griselda who is the icon of the submissive wife of dominant authority powers confronts the Wife of Bath who is the symbol of anti-patriarchal view point. The wife of Bath confutes the attitude of Griselda, who accepts Walter's request that she should submit to him under all circumstances and thus represents the ideal wife established by male powers throughout western history. Likewise, Molly Bloom escapes from the frame of Penelope, who has been consolidated as a model of idea woman and wife in the western society.

Both in *Canterbury Tales* and *Ulysses* there exists the active and intense

dialogic relation between the patriarchal discourse and anti-patriarchal one
by means of confrontation of woman characters: the wife of Bath versus
Griselda, Molly Bloom versus Penelope.

Key Words : feminism, patriarchal system, marriage system, subversion, the
wife of Bath, Molly Bloom. Griselda,
(페미니즘, 가부장주의, 결혼제도, 전복, 바스 부인, 몰리 블룸,
그리셀다)

논문접수일: 2012. 05. 07

심사완료일: 2012. 06. 08

게재확정일: 2012. 06. 15

이름: 이 영 심

소속: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64-268

이메일: youngsta@dreamwiz.com